

# 다니자키 준이치로 문학의 콤플렉스 연구 1

## - 『창조(創造)』를 중심으로 -

김상원\*  
seoultokyo@empas.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그림자와 자기실현 |
| 2. 플롯의 전개와 콤플렉스 양상 | 5. 나오며       |
| 3. 콤플렉스의 심리적 메커니즘  |              |

主題語: 다니자키 준이치로(Tanizaki Junichiro), 콤플렉스(complex), 페르조나(persona), 그림자(the shadow), 아니마(anima)

## 1. 들어가며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sup>1)</sup>)는 일본의 메이지(明治) 말기부터 다이쇼(大正)와 쇼와(昭和)시대를 거치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 근대문학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자연주의 소설에 반기를 들고 탐미문학이라는 자신만의 문학적 특징을 고수하며 전집이 무려 30여권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이다. 그의 탐미문학의 기저에는 서양승배사상과 마조히즘, 페티시즘과 이상성욕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깔려 있어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작품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다니자키 문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자키 소설연구에서 배제되어왔던 작품들이 다수 있다. 『창조(創造)』와 『여인신성(女人神聖)』<sup>2)</sup>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작품에는 앞서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1) 이하 '다니자키'라 칭한다. 본고에서는 인물명을 표기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표기하나, 두 번째 이후에는 한글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작품과 서명은 원제목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창조』의 경우 우성승배를 고찰한 中谷元宣(1998)의 「谷崎潤一郎「創造」試論-優生思想小説としての側面について-」 논문이 유일하며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 없다. 『여인신성』 역시 아직 국내에서 연구된

언급한 다니자키 문학의 다양한 양상들이 응축되어 있음에도 다니자키의 다른 주요작품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1915년에 발표된 『창조』의 경우 다니자키의 처녀작인 『문신(刺青)』이 발표된 지 5년만의 작품으로, 『문신』 이래 그의 문학의 기본 사상이 된 ‘모든 아름다운 것은 강자이며 추한 것은 약자였다(すべて美しい者は強者あり、醜い者は弱者であった)’라는 우성(優性)숭배 사상은 물론이고 서양숭배와 스쿠비즘(succubism) 등 그의 초기작품의 특징들이 모두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창조』를 중심으로 다니자키의 초기 문학적 특징들을 재고한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창조』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을 일종의 ‘콤플렉스(Complex)’로 규정하여 고찰한다. 콤플렉스라는 단어에 대하여 국어사전에는 ‘개인의 심적내용(心的内容) 중에서, 억압된 사고 욕구가 서로 착종(錯綜)되어 있는 관념(觀念)의 복합(複合)’<sup>3)</sup>이라 명기 되어 있으며 우리는 주로 열등감과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로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콤플렉스라는 말이 일상용어로 사용된 것은 카를 구스타프 융(C. G. Jung)<sup>4)</sup>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5)</sup> 융은 콤플렉스라는 명사를 정신의학 용어로 개념화하였으며 콤플렉스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나 조직들처럼 의식과 무의식을 막론한 인간정신의 정상적인 구성요소<sup>6)</sup>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무의식에는 무수한 콤플렉스가 있으며 태어난 뒤 살아온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억압된 것, 잊어버린 것들로 구성된 개인적 무의식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인간 행태의 보편적이며 원초적인 조건인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 한 사람은 프로이트(Freud)이었으며 융이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도 프로이트의 ‘억압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8)</sup> 그러나 프로이트의 경우 종교, 도덕, 사회, 예술의 기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콤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핵심을 이루며, 따라서 예술도 신경증적 증상이며 모든 상징물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다양한 심상적 특징에 불과하다고

바 없으며, 일본에서의 최근 논문으로는 히로인의 여성상을 고찰한 西莊保(1992)의 「谷崎潤一郎「女人神聖」論 - 「女人」をめぐって -」가 있다.

3) 이희승편저(2004)『국어대사전』민중서림, p.3917

4) 카를 구스타프 융(C. G. Jung:1875~1961):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 이하 ‘융’이라 칭한다.

5) 융은 언어 연상 시험을 통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 시간 지연, 연상 불능, 부자연스러운 연상 내용 등의 원인은 무의식적 정서가 반응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으며 이 무의식에는 감정·생각·기억의 연합군(콤플렉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C. G. 융, 설용환 옮김(2014)『C. G. 융 심리학 해설』선영사, p.94)

6) 이부영(2014)『분석심리학 이야기』집문당, p.39

7) 이부영(2001)『아니마와 아니무스』한길사, pp.32-33

8) 이부영(2014)『분석심리학 이야기』집문당, p.43

여겼다. 9) 반면 융은 무의식에는 억압된 성적 욕구나 충동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원천과 같은 전혀 다른 창조적 원천이 내재하고 있다<sup>10)</sup>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융의 ‘콤플렉스론’을 통하여 고찰하며 이를 통해 작가의 심리적 메커니즘도 함께 규명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창조』가 다니자키의 초기문학적 특징들이 응축된 작품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려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융의 분석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 2. 플롯의 전개와 콤플렉스 양상

『창조』는 1915년 4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된 후 이듬해인 1916년 5월 단행본 『금색의 죽음(金色の死)』에 수록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다. 작품의 구성은 총 5장으로, 1장에서 어느 해 봄으로 시작하여 이듬해 봄까지의 4장과 그로부터 15년 후인 5장까지이다. 『창조』의 플롯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3월 중순의 어느 해 봄, 여동생인 아야코(綾子)가 동경(東京)에 있는 오빠 가와바타(川端)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인 가와바타는 최근 사오년간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야코가 방문하였을 때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작품이란 지금까지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걸작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에이션(ほんたうの意味でのクリエイション)’이 될 것이라 하였다. 아야코가 가와바타를 방문한 목적은 서른여섯이 된 가와바타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T녀와 헤어진 후 줄곧 혼자 살아왔던 가와바타는 아야코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 같은 예술가는 평생 혼자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아야코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가와바타는 결국 자신의 예술론을 펼치며 아야코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한다.

2장은 같은 해 가을의 대화로 등장인물은 가와바타와 그가 양자로 들인 미소녀이다. 소년은 팔남매 중 여섯째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법과나 공과를 택하라는 부모의 강요에 문학을 하겠다며 반항한 탓도 있었지만 가와바타가 소년의 부모에게 강제로 양자로 달라고 하여 입양이

9) 손선희(2012)「문학의 분석심리학적 접근의 의의에 대한 고찰」『고황논문집』제51집, 경희대학교, p.90  
10)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2005)『상징과 리비도』술, p.30

이루어 진 것이다. 소년은 열여섯이나 열일곱 정도의 나이였으나 몸의 골격이 스물 둘 셋의 어른처럼 성장하였고 마치 희랍의 파르테논 신전 벽화에서 나온 듯 맹수처럼 건강한 몸에 우아한 얼굴을 가진 미소년이었다. 그러나 소년에게도 결점은 있었다. 그것은 ‘얼굴은 잘생겼으나 너무 차갑다(顔は整つては居るがあまり冷たい)’는 것이었으며 ‘육체는 훌륭하나 너무 강인(肉体は立派ではあるがあまり強過ぎ)’하여 ‘부드러움이라고는 전혀 없다(柔かと云ふものが全く欠けている)’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와바타는 소년에게는 없는 부드러움을 채우기 위하여 소년과 맞는 여인을 찾아주어 소년과 여인사이에서의 자식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완성케 할 계획을 소년에게 들려준다.

3장과 4장은 다음해 봄의 대화이다. 3장의 등장인물은 가와바타와 아이(藍)라는 이름의 열여섯 살의 소녀이다. 아이는 아버지가 놀랍도록 아름답고 무정하다고 들었으나 누구인지 모르며 기생이었던 어머니도 재작년에 사망하여 고아인 아이였다. 가와바타는 그의 재산을 할애해 화려한 저택을 꾸며 소년과 소녀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아이에게 그녀의 아버지보다 훨씬 아름답고 젊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한다. 4장의 등장인물은 소년과 아이이다. 가와바타의 예언대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모에 매혹되어 사랑에 빠졌고 서로가 가진 장점을 지닌 아이를 낳기로 약속한다.

5장은 그로부터 15년 후 봄의 대화이다. 등장인물은 이제는 아버지가 된 소년과 그의 아들이며, 가와바타는 소년의 아들이 아홉 살일 때 사망하였다. 소년과 아들의 대화는 가와바타에 관한 것이다. 전혀 할아버지의 외모와 닮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진짜 할아버지의 손자가 맞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소년은 자신은 할아버지의 자식은 아니지만 너는 할아버지의 자식이라 말한다. 그것은 ‘너라는 고운 자식을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께 선택되었(お前と云ふ麗はしい子を作る為めに、お祖父様から選ばれたのだ)’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소년은 아들에게 ‘너를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 무섭다(お前をあんまり美しく、あんまり貴く作り過ぎた事が恐ろしい)’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예술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플롯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조』에서는 다니자키의 처녀작인 『문신』에 나타난 ‘우성숭배사상’은 물론이고 기존의 그의 소설에서 나타난 ‘서양숭배사상’과 ‘스쿠비즘’양상 등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

먼저 『창조』의 작품 내에 등장하는 미남 미녀는 육체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던 주인공 가와바타에게 있어 그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자(美しい者)’였으며 동시에 『문신』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자(強者)’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얻어진 아이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를 사랑하며 그들 인간을 농락하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릴(其れ等の人を翻弄して、冷めたい背中を向ける) 최고의 ‘강자’였다.

두 번째로는 서양숭배사상이다. 다음은 1장에서 가와바타가 여동생인 아야코에게 자신의 작품론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다.

내가 어떤 것을 창조해도 도저히 서양인에게는 당해 낼 수 없어. 일본인은 당분간 예술로는 도저히 서양인을 이겨낼 수 없다는 굳은 미신을 나는 갖고 있어.

(己がどんなものをクリエイトしても、とても西洋人にはかなはないよ。日本人は当分の間、到底芸術を以て西洋人に打ち勝つ事は出来ないと云ふ、己は堅固な迷信を持つて居る。)11) (p.4)

상기 예문에서와 같은 서양숭배사상은 『소년(少年)』과 『금색의 죽음(金色の死)』에서 『치인의 사랑(痴人の愛)』에 이르기까지 다니자키의 초기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이나, 『창조』에서는 그 양상이 단순한 서양숭배사상을 뛰어넘어 서양에 대한 일본인의 열등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자신의 외모와 육체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일본인 전체로 전이된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용모가 없어. 훌륭한 육체도 없다. …(중략)… 저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렴. 어찌 이리 탁하고 천박한 색깔의 눈동자인지. 어찌 이리 품위 없고 불품없는 코인지. 노랑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뭐랄까 애매하며 불유쾌한 피부색이지. …(중략)… 대개의 일본인은 모두 쓸모없다. …(중략)… 일본인만큼 어둡고 추악하고 비천하며, 미술적이지 못한 형태를 지닌 종족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己には美しい容貌がない。立派な肉体がない。…(中略)… あすこの鏡に映つて居る己の姿を御覧。何と云ふ光の鈍い、浅薄な瞳の色だらう。何と云ふ下品な不恰好な鼻だらう。黄でもなく、白でもなく、黒でもなく、何と云ふ曖昧な不愉快な皮膚の色だらう。…(中略)… 大概の日本人はみんな駄目さ。…(中略)… 日本人程暗黒な、卑賤な、非美術的な形態を持つて居る種族はないと思ふね。 ) (pp.7-8)

『창조』에서의 서양숭배사상은 아야코에 대한 가와바타의 대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와바타가 입양한 소년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담(ミケランジェロのアダムの絵)’처럼 서양인을 닮았으며 ‘희랍의 파르테논 신전의 벽화(希臘のパルテノンのフリーズ)’에서 빠져나온 듯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모습은 상기예문에서 묘사되는 가와바타가 지닌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11) 작품의 인용문은『다니자키 준이치로 전집 제3권(谷崎潤一郎全集第三巻)』(1981, 中央公論新社)에 의한다. 인용문 뒤에는 쪽수만 기입하도록 한다.

또한 『창조』에서 보이는 주인공 가와바타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스쿠비즘<sup>12)</sup>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외모를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추구하려는 『창조』에서 추한 외모의 자신과 일본인은 하위에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의 소년과 소녀, 그리고 서양인은 상위에 있다는 스쿠비즘이다.

이 이외에도 『창조』에는 다니자키 소설의 키워드 중 하나인 ‘삼각관계’ 양상이 나타난다. 1장에서 가와바타는 아야코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T녀’와 결별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는데 다음은 그 대화의 일부이다.

혹시 T와 결혼해서 꿈꾸던 예술적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면 나는 이제 그림 따위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 자신의 생명을 창작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제일의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 그런데 T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를 버렸단다. 나를 버리고 S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지. …(중략)…여기 S의 사진이 있지만 이를테면 이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를 보려무나. 풍만한 팔뚝 살도 생기 넘치는 입술색을 봐. 그리고 기품과 위엄이 있는 코의 모양새를 보면, 이 사내만은 분명 일본인 중에서도 예외인 거지. T와 나와 동등한 심미안을 갖고 있다면 보기 싫은 나를 버리고 아름다운 S가 있는 곳으로 달아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니 용서해야만 해.

(若しもT子と結婚して、理想通りな芸術的生活を営む事が出来たなら、己はもう絵などを畫く必要はない。自分の生命を創作するだけで立派な第一義の藝術家になり得ると思つて居た。ところが、T子は結婚してから間もなく己を捨ててしまつた。己を捨ててSの所へ走つてしまつた。…(中略)…ここにSの写真があるが、まあ此のパツチリとした瞳を見る。豊かな腕の肉を見る。生き生きとした唇の色を見る。それから氣高い、威嚴のある鼻つきを見る。此の男だけはたしかに日本人のうちでも例外の方だ。T子が己と同等の審美眼を持つて居るなら、醜い己を捨てて美しいSの所へ走つたのは寧ろ當然の選択として許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p.9)

상기 예문에서 가와바타는 아야코에게 T녀가 S에게로 가버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외모 탓이며 T녀가 일본인 중에서도 예외일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S에게 가버린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T녀는 가와바타가 예술적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여인이었으나, S에게로 가버린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미적 기준에서의 상하관계인 스쿠비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12) 스쿠비즘에 대하여는 줄고(2012) 「谷崎潤一郎의『少年』論 -人稱과 스쿠비즘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5집 에서 논한 바 있다. 스쿠비즘은 마조히즘(masochism)과 비슷한 개념으로 독일인 마그누스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정신병리학적 용어이다. 이후 누마 쇼조(沼正三)는 스쿠비즘을 <육체적 하위>, <육체적 하부>, <관념적 하부A>, <관념적 하부B>, <관념적 하위>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각각의 대상을 위치상 위에 두고 스스로를 하위에 두고 싶어 하는 심리이다.

T녀와 S가 얽힌 삼각관계 양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관계가 기존의 다니자키 문학과 다른 점은 주인공 가와바타가 T녀와 S사이에서의 질투로 인해 성(性)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예술 창조에 대한 열망으로 승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에서는 다니자키의 초기문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우성승배사상과 서양승배사상, 그리고 마조히즘과 삼각관계 등 그러한 양상들이 모두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콤플렉스와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창조』는 한마디로 콤플렉스의 문학인 것이다.

### 3. 콤플렉스의 심리적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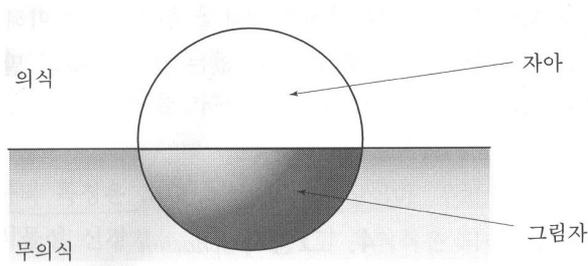
지금까지 『창조』에 나타난 특징들이 다니자키 초기문학의 것들과 연관성이 있음과 동시에 가와바타의 미적 기준에서의 외모콤플렉스가 가미된 것임을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가와바타가 지닌 이러한 콤플렉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심층심리학에서 콤플렉스에 대한 연구는 먼저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그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한정지어 연구한 반면 융은 콤플렉스가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생각에서 콤플렉스 자체를 파고들어 1928년 「정신에너지」를 발표하면서 ‘콤플렉스론’을 확립하였다.<sup>13)</sup> 융이 말하는 콤플렉스란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감정으로,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며 통합된 의식의 질서를 일시적 또는 장기간 교란하는 것이다. 또한 무의식 속에서 의식의 통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아로 하여금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도록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무수히 많은 체험이 무수히 많은 콤플렉스를 만들어 내므로 콤플렉스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sup>14)</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에서 주인공 가와바타가 보이는 다수의 콤플렉스는 모두가 자신의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창조』1장인 여동생 아야코와의 대화에서 가와바타가 보인 콤플렉스는 단순한 외모콤플렉스라기보다는 일종의 노이로제에 가까울 정도의 자기 비하적이며 극단적인 것이었다. 아야코라는 가족 구성원의 결혼제의를 수차례 거절하고 예술가로서의 본분을 잊고 일본최고의 걸작을 창조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가와바타의 콤플렉스는 이윽고 일본인 전체를 비하할 정도의 도를 넘은 것이었다. 가와바타가 보이는

13) 김정민(2012)『분석심리학과 기독교』학지사, p.24

14) 이부영(1998)『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pp.4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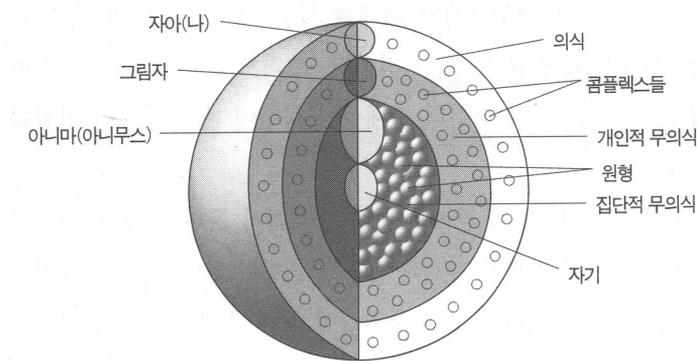


〈그림 1〉 자아와 그림자

이와 같은 심적 갈등은 의식에서의 단순한 열등감이 아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극도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융은 이와 같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을 ‘그림자(The Shadow)’라 명명하였다. 〈그림 1〉<sup>15)</sup>에서와 같이 그림자란 바로 ‘나(自我)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이다. 그림자는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내용으로 열등한 인격과 같은 것이다.<sup>16)</sup> 즉 자아와 그림자는 의식과 무의식처럼 상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무의식에 있던 그림자가 의식 밖으로 나와 자아에 드리워 질 때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혐오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마음의 구조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크게 넷으로 구분한다. ‘자아’ 또는 ‘나’는 의식의 중심에서 의식을 통솔하고 무의식의 마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식의 특수한 콤플렉스이다.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self)라는 것이 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

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정신이다. 그것은 인격성숙의 목표이며 이상이고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전체정신의 중심이며 핵<sup>17)</sup>이고 그러한 자아와 자기 사이에 바로 그림자와 아니마(아니무스)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그림자는 〈그림 2〉<sup>18)</sup>와 같이 개인에게 있어 무의식에 존재하는 수많은 콤플렉스들 중 열등하고 어두우며 억압된 추한 것들을 지칭한다.

15) 전게서, p.72

16) 전게서, pp.71-72

17) 이부영(1999)『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그림자-』한길사, p.45

18) 전게서, p.35

『창조』의 주인공 가와바타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은 자아와 그림자의 상대적 관계이다. 가와바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서른여섯의 예술가지만 최근 사오년간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야코가 가와바타를 방문했을 때도 3월 중순의 봄날이었음에도 가와바타는 사방을 온통 걸어닫고 방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가와바타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아야코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근 사오년간 오빠가 전혀 작품을 발표하지 않으셔서 세간에서는 이제 가와바타도 시류에 뒤쳐져 늙어버리고 말았다고들 해요. 저는 오라버니의 험담을 들을 때마다 웬지 억울해 미칠 것 같았어요.”

(「此の四五年間あなたがさつぱり製作を発表なさらないもんだから、世間ではもう川端も時勢に後れて老耄してしまつたんだなんて云つて居ますわ。あたしは兄さんの悪口を聞く度び毎に、何だか口惜しくつて仕様がなかつたわ。」 (p.4)

그러한 아야코의 말에 가와바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도 참 바보 같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를 신용하고 있으면 억울할 것까지 없잖나? 나는 이제 서른여섯 살이야. 벌써 늙어서 정체될 일 있겠나? -하지만 그 일에 치우치면 너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해할 능력이 없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낸 판가름 날 일이야.”

(「馬鹿だなお前は。世間の奴等が何と云つても己を信用して居れば口惜しがるには及ばないぢゃないか。己はまだ三十六だぞ。今から老耄して溜るもんか。一けれども事に依つたら、お前もやつぱり世間の奴等と同じやうに己を理解する力がないかも知れないな。其れも此れも、いよいよ己の芸術を作り上げて見れば判る事なんだ。」 (p.4)

세상에서 기대하는 가와바타의 모습은 예술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와바타는 세상이 뭐라고 하건 간에 세상과는 차단한 채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 낼 구상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을 험담하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집단이 특수한 성원에게 한결같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동상의 규범을 분석심리학에서는 ‘페르조나(Persona)’라 칭한다.<sup>19)</sup> 최초 고대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부르던 말로 한 배우가 왕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 그는 왕이 되는 것처럼

19) 이부영(1998)『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p.82

페르조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다. 즉 페르조나는 그 사회집단이 정해 놓은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페르조나는 내가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페르조나에 입각한 태도는 주위의 일반적 기대에 맞추어 주는 태도이며 외계와의 적응에서 편의상 생긴 기능콤플렉스(Funktionskomplex)<sup>20)</sup>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의식의 자아와 무의식의 그림자라는 관계에서 페르조나는 의식이 주관하는 현실세계에서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와 밀접한 관련<sup>21)</sup>을 맺는다. 즉 자아는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를 어느 정도 이루어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에서의 가와바타가 외부세계와 단절한 채 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상하고 집단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페르조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려는 현상이다. 반면 페르조나와는 상대적 개념인 무의식의 열등한 개념, 즉 그림자만이 가와바타의 내면에 가득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가와바타의 이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 2장의 플롯의 전개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조』에서 보이는 가와바타의 외모콤플렉스와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은 T녀와의 결별로부터 비롯된다. T녀가 자신을 버리고 S에게로 가지 않았더라면 가와바타에게 있어 실생활에서의 예술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아야코가 가와바타에게 결혼을 주선하려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창조』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가와바타가 『창조』에서 보이는 모든 심리적 콤플렉스는 T녀와의 결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다.

가와바타에게 있어 T녀와의 결별은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실생활 속에서의 예술 창조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페르조나의 상실인 것이다. 아울러 가와바타가 보인 열등한 인격으로서의 그림자 양상 역시 이러한 페르조나의 상실과 더불어 발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창조』에서 가와바타가 보이는 콤플렉스는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개인적 콤플렉스와 두 번째로 일본인 혹은 일본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것이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서의 그림자 아래층에 있는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를 이해하여야 한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란 집단적 무의식에 있는 내적 인격의 특성을 말하며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의

20) 전계서, p.82

21) 이러한 의미에서 페르조나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제시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중 ‘상징계’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부른다.<sup>22)</sup> 쉽게 말해 남성이 여성에게서 느끼는 호감은 그녀에게서 현실적인 여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에 투사된 여신상(女神像), 즉 아니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때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이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 보편적, 원초적 특성을 말한다. 의식의 외적 인격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내적 인격의 특성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전인격에 보충됨으로써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sup>23)</sup>이다.

앞서 살펴본 외적인격이라 할 수 있는 페르조나를 가지고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세계에도 외적 인격과 대조되는 태도와 자세, 성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내적인격이라 부르며 아니마아니무스는 바로 이 내적 인격을 말한다.<sup>24)</sup>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겉으로 표출되는 페르조나와는 상반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의 일면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체(subjekt)는 바로 이러한 ‘내적 객체’를 말한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아니마가 의식화되지 않아 미분화 상태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원시적 감정과 통하게 되어 남성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부정적인 아니마’(negative anima)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아니마는 자신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sup>25)</sup>는 것이다. 즉 이와 관련하여 『창조』에서 보인 가와바타의 자신과 일본인에 대한 비하발언은 가와바타의 내적인격이 부정적인 아니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마의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경험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년시절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체험했다면 그의 아니마는 흔히 우울한 기분, 짜증, 끝없는 불만과 예민함의 특징을 갖게 된다.<sup>26)</sup> 어머니는 아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이성이다. 따라서 아니마의 인식에서 아니마가 모성과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모성과 아니마는 구분되지 않은 상(像) 속에 포괄되어 있다가 뒤에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분리되면서 어린이의 무의식의 모성상과 아니마상이 분리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도 아니마가 모성과 습합되어 있거나 모성상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부인이 모성-아니마가 되어 모성의존의 퇴행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모성과의 유대에서 독립하는 과제가 자기실현에서 중요한 것이다.<sup>27)</sup>

22) 융의 아니마아니무스론은 인간이 남성과 여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남성은 여성적 요소를, 여성은 남성적 요소를 살려서 의식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부영(2001)『아니마와 아니무스』한길사, p.36)

23) 이부영(1998)『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p.87

24) 이부영(2001)『아니마와 아니무스』한길사, p.30

25) 이부영(1998)『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pp.93-94

26) 이부영(2001)『아니마와 아니무스』한길사, p.104

즉 긍정적인 아니마의 형성은 모성콤플렉스의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와바타의 부정적 아니마의 모습은 작가론적 측면에서의 유아기적 다니자키의 모친 세키(関)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작가 다니자키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미남 미녀를 결혼시켜 완전한 인간을 창조해 낸다는 『창조』의 플롯 역시 아니마아니무스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림자와 자기실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고찰한 가와바타의 그림자 양상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창조』1장에서 가와바타는 아야코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자신을 닮은 추한 용모의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며 끝내 아야코의 결혼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는 이윽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어째서 세상 부모들은 잘생긴 남의 자식보다도 못생긴 자기애가 귀여운 걸까? 내가 부모였다면 설사 내 자식이라도 미운 녀석은 노예처럼 학대하고 예쁜 남의 자식을 양자로 삼아 귀여워할 텐데.”

(「どうして世間の親たちは、美しい他人の子よりも醜い自分の子の方が可愛いんだらう。己が親だったら、たとへ自分の子供でも醜い奴は奴隷のやうに虐待して、美しい他人の子供を養育するなり、可愛がるなりしてやるがな。」) (p.11)

예술가인 가와바타는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세상과 단절하여 자신만의 몽상을 꿈꾸는 모습도 모자라 여동생에게 못생긴 자기 자식은 학대하고 예쁜 남의 자식을 입양하여 키울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가와바타의 심리상태는 앞서 고찰한 페르조나 상실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인 그림자의 단면이기도 하다. 즉, 가와바타에게 있어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낳게 될 자신의 아이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투사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림자 양상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가와바타의 콤플렉스가 일본인 전체로 확산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창조』1장에서의 가와바타의 말이다.

27) 이부영(2003)『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pp.142-143

“만약 인생 그 자체를 예술화시키고자 한다면 나를 시작으로 일반적인 일본인은 우선 빈약한 체질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가지. …(중략)… 서양인은 물론이고, 사자나 양이나 비둘기 또는 갈매기 같은 금수 종류조차 떼 지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일종의 미감을 만들어내는 법인데 일본인의 얼굴만은 유독 모이면 모일수록 추악함이 도를 넘을 뿐이니 그 점은 이상하지 않나?”

(「若し人生其の物を芸術化させようと試みるならば、己を始め一般の日本人は先ず貧弱な体質からして直してかからなければ無意味な話さ。…(中略)… 西洋人は無論の事だが、獅子だとか羊だとか鴉だとか云ふ禽獣の類ですら、沢山集れば其処に一種の美感を生ずるものだけれど、日本人の顔だけは集まれば集まる程醜悪の度を増すばかりなのはをかしいぢやないか。」)

(p.8)

상기 예문은 아야코와의 대화에서 가와바타가 자신의 외모콤플렉스를 일본인 전체로 확산하여 피력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러한 빈약한 체질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 인생 그 자체를 예술화 시키고자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와바타 스스로가 T녀와의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해 드러난 그림자 양상을 일본인 전체로 확산시킨 결과이다. T녀가 자신을 떠나 S에게로 떠나버린 이유를, 일본인으로서의 예외라 할 만큼 잘생긴 S의 외모탓이라고 믿고 있는 가와바타는 자신의 추한 외모를 일본인 전체에게로 투사시킨 것이다. 즉 일본인 전체에 대한 비하는 가와바타가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일본인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그림자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와바타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일본인 전체로 이입시키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그림자 양상이 확산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창조』의 전체적인 플롯을 요약하면 자신을 추한외모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주인공이 일본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를 입양하여 둘을 결혼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생긴 아이는 결국 일본 최고의 걸작이고 이는 곧 주인공이 창조해 낸 걸작이라는 내용이다.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신이 추구했던 인생의 예술화라는 목적을 상실한 가와바타는 이윽고 페르조나로부터 회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가와바타의 경우 페르조나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자아와 다른 무의식의 존재에 눈을 뜬 것이다. 즉 세속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와바타는 페르조나의 상실 이후 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무의식의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자기실현을 이룬 것이다. 가와바타는 페르조나가 본질이 아니며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정신의 중심에 입각해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 5. 나오며

지금까지 다니자키의 초기소설 중 하나인『창조』를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콤플렉스양상에 착안하여 이를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창조』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우성숭배사상과 서양숭배사상 그리고 스쿠비즘과 삼각관계 등 다니자키의 초기문학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고스란히 응축된 작품임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다니자키의 다른 작품들과 다른 점은 모두 콤플렉스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콤플렉스 양상을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통해 고찰해 본 결과, 주인공 가와바타의 콤플렉스는 의식의 페르조나를 상실한 결과로 나타난 무의식으로부터 부양된 그림자의 단면들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의 모습들은 T녀로부터 버림받고 그녀와의 결혼생활로 인한 예술생활을 꿈꾸었던 주인공에게 그것이 좌절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가와바타에게서 보이는 일본인 전체에 대한 비하는 부정적인 아니마에 의한 것으로, 이는 가와바타가 작가 다니자키가 투영된 인물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와바타가 창조해 낸 결작은 페르조나를 버리고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기실현을 위한 것임을 고찰하였다.

『창조』는 지금까지의 다니자키 문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단편 소설이었으나, 본고를 통하여 마조히즘과 스쿠비즘 등 기존의 다니자키 연구가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參考文獻】

- C. G. 융, 설용환 옮김(2014)『C. G. 융 심리학 해설』선영사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2005)『상징과 리비도』술  
 김정민(2012)『분석심리학과 기독교』학지사  
 이희승편저(2004)『국어대사전』민중서림  
 이부영(2014)『분석심리학 이야기』집문당  
 \_\_\_\_\_(2001)『아니마와 아니무스』한길사  
 \_\_\_\_\_(1999)『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그림자』한길사  
 \_\_\_\_\_(1998)『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_\_\_\_\_(2003)『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손선희(2012)「문학의 분석심리학적 접근의 의의에 대한 고찰」『고향논문집』제51집, 경희대학교

**【텍스트】**

『創造』『谷崎潤一郎全集 第三卷』中央公論新社, 1981

---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

---

 <要旨>
 

---

## 다니자키 준이치로 문학의 콤플렉스 연구 1

## -『창조(創造)』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다니자키 준이치로(Tanizaki Junichiro)의 초기작품 중 하나인 『창조』(SOUZOU)에 나타난 콤플렉스 양상을 융(Jung)의 분석심리학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우선 『창조』는 다니자키 문학의 다양한 양상들이 응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작품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우성승배사상과 서양승배사상, 스쿠비즘(succubism) 등 다니자키의 초기문학에서 보이는 양상들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임이 입증되었다.

작품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극단적인 콤플렉스 양상은 외모와 육체적인 열등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인 그림자(The Shadow)의 단면이었으며 페르조나(Persona)의 대극양상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적 콤플렉스와 함께 일본인 전체를 비하하는 집단적 콤플렉스도 나타났는데 이 모두는 ‘T녀’와의 결혼생활로 인한 예술생활을 꿈꾸었던 주인공에게 그것이 좌절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고찰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마조히즘(masochism)과 스쿠비즘 등 기존의 다니자키 연구가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Study 1 on Complexes Observed in Tanizaki Junichiro's Literature

## - focusing on 『SOUZOU』 -

This study referred to Jung's theory on Analytical Psychology in order to understand complexes found in 『SOUZOU』, one of the early works written by Tanizaki Junichiro. First of all, even though 『SOUZOU』 is a work which every different aspect of Tanizaki's literature is condensed into, few researches have discussed the literature but as for this study, it confirmed that 『SOUZOU』 is a work to deal with all these various aspects found usually in Tanizaki's early works, and the aspects include idolatry, occidentalism, succubism and others.

The extreme complex aspect of a hero in the work originates from how inferior he feels to his appearance and physical conditions and, that is regarded not only as a slice of The Shadow, an inferior character in consciousness, but also as the opposition to Persona. Add to that, along with the personal complex, the work also talks about a group complex and, the latter ends up insulting all Japanese people. As far as this study understands, all of the complexes are considered phenomena which the hero would face when his dream life as an artist falls to pieces due to his marriage to ‘T woman’.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recognized in that this study had proved how the previously-conducted researches on Tanizaki, which were focusing on masochism and succubism, can be reviewed and re-investigated from new perspectives.